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05. 0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교도소 내 테러리스트·급진주의자 분리 강화 추진
 - 4.27 「도미닉 라브」 영국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언론을 통해 교도소에서 급진화와 테러모의를 차단하기 위해 수감 중인 테러리스트와 급진주의자 분리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
 - * 同인은 테러리스트와 급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現 인권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
- 리투아니아, 드론 요격용 '방탄복 재질 그물' 개발
 - 4.28 리투아니아 언론은 自國 연구소에서 방탄복 소재를 활용해 제작한 드론 포획 망의 발사가 가능한 '드론 인터셉터*' 개발에 성공했다며, 그물 강도는 강철 대비 5배, 사정거리는 4~5m라고 보도
 - * 프로펠러 4개가 장착된 요격용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그물을 발사하면, 가로·세로 2m 내외의 사각형으로 펼쳐져 목표한 불순 드론 포획 가능

미주

- 美, '외로운 늑대'의 '유령 총' 이용 범죄로 사회 우려 확산
 - 지난 4.22 美 워싱턴 D.C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(4명 부상)은 은둔형 남성(23세)이 추적·관리가 어려운 '유령 총'으로 벌인 전형적인 '외로운 늑대'형 범죄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우려 확산
 - * 범인은 5층 아파트에서 학교·거리를 향해 200여발을 발사 후 자살했으며, 현장에서 장총과 탄약, 거주지에서 '유령 총' 3정 분량의 총기부품과 탄약 수천발 발견
- 美, 아프간 철군 과정 9조원 상당 군사 장비 현지 방치
 - 4.27 美 국방부는 의회 보고서에서, 지난 16년간 아프간 민주 정부에 23조여원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나, '21.8월 자국군 현지 철수시 9조원 상당의 군장비가 방치되어 '탈레반'으로 넘어갔다고 발표
 - * 한편, 同 보고서는 방치된 군사 장비에 공대지 미사일 9천여 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,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없이는 군사활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 대통령, '테러와의 전쟁' 의지 표명

- 5.1 「아리프 알비」 파키스탄 대통령은 4.26 발생한 카라치大 자살폭탄 테러*(사망 4명 : 중국인 3, 파키스탄인 1) 관련, 중국 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난하며 '대테러전'에 나서겠다고 강조
- * 발루치스탄해방군(BLA)은 사건 배후를 자처하며, 여성이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

○ 탈레반 수장, 라마단 종료 기념행사 등장

- 5.2 언론은 '은둔의 지도자'로 불리는 탈레반 수장 「아쿤드자다」가 작년 10월 대중연설에 이어 라마단 종료행사에 등장, 국제사회에 탈레반 정권 인정 및 투자를 촉구했다고 보도
- * 또한, 해외 탈출 아프간인의 귀국을 촉구하는 한편, 軍·警에 국민 존중 등을 지시

중 동

○ 이란,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해제요구로 핵 협상 교착 가능성 초래

- 5.2 언론은 이란 핵합의(JCPOA, 포괄적 공동행동계획)* 복원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이란 정부가 자국 혁명수비대의 외국테러조직(FTO) 제외를 요구함에 따라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
- * JCPOA는 지난 '15년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(미·영·프·러·중) 및 독일과 맺은 합의이나, '18년 美 「트럼프」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

아프리카

○ 르완다, 영화 '호텔 르완다' 실제 인물 자국 정부 상대 소송

- 5.2 언론은 난민 보호 영웅담을 그린 영화 '호텔 르완다'의 실제 인물 「폴 루세사바기나」가 납치·감금을 이유로 르완다 대통령 등 정부 대상 약 4억달러(약 4천800억원)의 손해배상 소송을 美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
- * 同人은 르완다에서 叛軍의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

이라크, 쿠르드 자치지역 경찰모집센터 자폭테러

- 2005.5.4. 09:30경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 시내의 경찰모집센터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60여명이 사망하고, 150여명 부상
 - * 당시 경찰모집센터는 쿠르드 민주당(KDP) 사무실을 이용
- 당시 용의자는 지원자로 가장하고 모집센터로 진입, 300여명의 경찰관과 지원자 등 속에서 자폭함으로써 다수의 인명피해 초래
-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‘안사르 알 이슬람(Ansar al Islam)’은 이번 공격 배후를 자처하며, ‘쿠르드족의 과도정부 참여 및 쿠르드 민병대의 美軍 치안활동 협조에 대한 응징’이라고 언급
 - * 안사르 알 이슬람은 '04.2월 2곳의 쿠르드 정당 사무실 연쇄 테러(100여명 사망) 배후도 자처
- 한편, 한국 자이툰 부대는 주둔지로부터 약 8km 떨어진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자 테러 징후 평가단계를 ‘위협(red)’으로 격상, 부대원 영외활동 전면금지 및 부대출입자·차량 등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등 조치

< 안사르 알 이슬람(AAI)>

Ansar al Islam

- (목표) '01.12월 수니파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,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3.2), 미국('04.3), 캐나다('04.5)
- (조직규모) 1,000명('19.11, 이라크 보안당국)
- (연계세력) ISIS, 알카에다, 알 누스라 전선(ANF)
- (핵심인물) 아부 하심 알 이브라힘(지도자), 나즈무딘 파라즈 아흐마드(설립자)
- (활동지역)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주 및 모술·키르쿠크 등지
- (활동수법) 이라크 군·경찰 및 쿠르드족 대상 무장공격 및 외국인 납치·참수
- (주요동향)
 - '04.2. 아르빌 연쇄 폭탄테러(사망 109, 부상 130)
 - '05.5 아르빌 자살 폭탄테러(사망 60여명, 부상 150여명)
 - '11.2. 키르쿠크에서 자폭테러(경찰 등 사망 7, 부상 80)
 - '14.8. ISIS와 통합한다는 공식 성명발표 등